

국어 영역

4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Glory Steady Go!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독서
- 문학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는 단순한 생태 보전을 넘어, 국토 전반의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복합적 제도 장치를 갖추고 있다. 멸종위기 생물의 정의는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멸종의 위험이 있는 종’이며, 이들 종은 위협 요인의 심각성이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I급과 II급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야생동물보호법 제정 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을 둘러싼 관계 법령들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핵심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동물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하위 법령이 적용 주체 및 보호 방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가령 멸종위기종이 하천이나 바다에 분포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인 경우 해양수산부 주관 법령이, 생물이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일 경우 문화재청이 추가로 관할한다. 그러나 법령 간 경합이 일어난다면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다른 법령 역시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원칙적으로 포획·채취와 포획 도구의 소지, 서식 환경 훼손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입·반출입에 대해서도 「관세법」, 「대외무역법」과 연계된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도 포획·채취가 엄격히 제한된다. I급과 II급에 관한 처벌은 개인이나 기관이 연구 또는 서식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인 CITES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별도로 정의하고 수출·수입 시 환경부 허가증을 받도록 규정한다.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인공증식·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몰수 조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몰수된 개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 관할의 보전기관으로 이전되거나 복원 사업에 활용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와 야생동물 보호 체계가 교차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명시된 지침을 올바르게 따라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멧돼지, 까마귀 등 특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자 지자체장은 해당 동물의 번식지·서식지 관리와 포획 허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해야생동물이 멸종위기종인 경우는 사실상 허가가 극도로 제한된다. 각 지자체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더라도, 멸종위기종 포획은 환경부 장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울타리와 망 등의 피해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설 설치 구역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충돌하면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포획이 불가피한 야생동물에 대

해서만 제한적 포획 허가를 내주도록 규율한다. 특히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법률 간 충돌이 없도록 환경부가 제정한 시행규칙과 지침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제도를 검토한 뒤, 다른 나라 법령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개념과 중요성을 밝히고, 관련 부처별 관리 업무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적용 범위를 제시하고, 여러 관계 법령 간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을 소개한 뒤, 각 방법의 기술적 유용성을 법률적 측면에서 검증하고 있다.
-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 제정의 전반적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의 포획 및 반출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 ② 천연기념물 해양생물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문화재청 소관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 ③ 2024년 이후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은 이전과는 달리 관련 허가를 취득한다면 불법 증식으로 판단받지 않는다.
- ④ 피해방지단이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승인 없이 포획할 시 법령에 위반된다.
- ⑤ 하나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하여 여러 법령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하위 법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환경부가 추가로 관리 조건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개인이 서식지 복원의 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③ 특정 멸종위기 생물이 인명 피해를 입힐 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④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와 피해예방 시설 설치 구역이 충돌할 시 서식지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⑤ 멸종위기 생물이 몰수된다면 환경부 관할의 보전기관으로 이전되어 관리·보전된다.

4.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지자체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흰목물떼새가 민가 근처 하천 독에서 번식 중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은, 기존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포획에 더해 “흰목물떼새도 공격적이고, 농작물을 훔쳐 먹어 불편하다”며 포획 요청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A 지자체장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포획 불허 방침을 알렸다. 대신 하천 인근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으나, 계획된 설치 구역은 흰목물떼새의 구역 일부를 포함하였다.

- ① A 지자체장은 흰목물떼새에 대하여 야생생물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겠군.
- ② 멧돼지와 달리 흰목물떼새의 피해방지단을 설립하지 않은 것은 흰목물떼새가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겠군.
- ③ A 지자체가 울타리를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겠군.
- ④ A 지자체는 흰목물떼새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겠군.
- ⑤ 흰목물떼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해당 종의 관리와 처치에 대한 조건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겠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어쩌다가 내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나 하고 자신의 이력을 검토해 보기 시작했다. 이른바 일류대학을 지망했다가 실패하자 ㉠ ‘나만 열심히 하면 어느 대학이고 어떠랴’ 하고 들어간 정원미달의 어느 삼류 대학 사회학과를 마치고, 임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어쩌다가 떨어진 게 정훈(政訓)이었고 정훈에서 어쩌다가 맡은 게 군내(軍內) 신문 편집이었고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었고 제대하여 취직할 데를 찾던 중 어느 회사의 굉장한 경쟁률의 입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함께 응시했다가 함께 미역국을 먹은 여자와 사랑하게 되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모험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군대에 있을 때의 어설픈 경험으로써 대학 동창 하나가 기자로 들어가 있는 신문에 그 친구의 소개로 ㉡ 만화를 연재하게 되었고, 밥값이 생기자 그 여자와 결혼식은 빼어 버린 부부가 되어, 한 지붕 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방 한 칸을 세내어 들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어쩌다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기가 지난날 우연 속에 자신을 맡겨 버린 것이 갑자기 역겨워졌다. ‘거지같은 자식이었다’ 하고 ㉢ 그는 자신을 욕했다. 손톱만큼이라도 좋으니 나의 주장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다시 한 번 자기의 이력을 검토해 보면 그 망할 놈의 군대생활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군대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희망대로 생활할 수 있던 말인가, ‘좌향 앞으로 갔!’ 하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 ‘포복!’ 하면 앞드러서 기어야 했다. 마치 그의 만화 속의 인물들이 자기들의 표정과 운명을 그의 펜 끝에 맡겨버릴 수밖에 없듯이. 우연 속에 자신을 맡겨 버리는 습관을 가르쳐 준 게 그놈의 군대였었다. 그런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긴 그것이 평안했어. 적어도 신경쇠약에 걸릴 염려는 없었거든. 그는 여전히 천장을 올려다보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대학에서 배운 것을 ㉣ 팔아먹고 싶다고 앙탈하지는 않겠다. 만화일만이라도 계속할 수 있어야겠다.

(중략)

그는 자기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얼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X군’, 차나 한 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시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는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꼭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깡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크로로마이싱을 먹었어. 크로로마이싱을 말야. 흉터가 있거든.”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크로로마이싱에지.”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그래도 별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센데요, 네?”

[B]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 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을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이 생각키었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흥,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끼었기로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거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 김승옥, 『차나 한잔』 -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목표했던 취업에는 떨어졌지만, 함께 시험에 낙방한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다.
- ② 군대에서의 ‘그’는 연재중이던 만화의 등장인물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하게 여겼다.
- ③ ‘그’는 김 선생과 술을 마시며 ‘아톰X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 ④ ‘그’는 한 지붕 밑에 살고있는 아주머니의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그’는 아내를 안으며 자신이 아내를 때리게 될 것을 우려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만화의 등장인물에게 건넨 말을 통해 자신이 가진 만화에 대한 불만족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그가 자신이 그린 등장인물을 직접 지우는 과정을 통해 만화의 연재가 중단될 수 있음이 나타난다.
- ③ [A]에서 그는 독자들의 기대와 자신의 만화 즐거리가 불일치하게 된 것을 걱정하고 있다.
- ④ [B]에서 그는 오랫동안 웃으며 자신이 무심코 낸 소리가 아주머니에게 주의로 다가왔을 것이라 판단한다.
- ⑤ [B]에서 아주머니의 재봉틀은 그에게 그의 경험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7.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생계 수단이 이전의 경험과 무관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③ ㉢는 자신의 주장들에 대한 반성을 드러낸다.
- ④ ㉣는 그는 생계 수단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낸다.
- ⑤ ㉣는 그의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8.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960년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제적 효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일들은 우선순위가 밀려 도태되거나 배제되었으며 여러 사람들은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차나 한잔」은 주인공 ‘그’의 내면의 갈망과 그것에서 기인한 무력감, 자신이 겪어온 경험과 현재 상황을 대비하고, 현실의 상황을 직면하기 힘든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통해 당대인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 ① ‘어쩌다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이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을 드러내는군.
- ② 주인공이 ‘군대생활’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과정이 나타나는군.
- ③ 택시에 두고 내린 ‘서류용 봉투’를 통해 주인공이 술에 취해 현실과 생계 수단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④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라는 표현을 통해 무력감을 마주한 주인공의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⑤ 주인공이 ‘어지간히 성실히 사는척 하지?’라는 말을 꺼낸 것을 통해 불만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군.